

11/27/16

설교 제목: 올바른 전도의 내용과 방식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2:1-5

(고전 2: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절판주** 고전 1:17

(고전 2: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전 2: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전 2: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한 젊은 목사가 연로하신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 여쭙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 목회를 얼마나 했나?”

“한 10 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설교하기가 힘들어지고 교인들도 제 설교에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네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가?”

“물론이지요.”

“내가 자네에게 먼저 하나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자네 설교할 때에 ‘설교 잘 한다’는 평을 받고 싶어 하는가?”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이미 틀렸다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은혜 받고 감동되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서 설교를 해야 하네. 이런 생각없이 설교를 잘한다는 평만을 듣고자 한다면 이미 자네는 설교를 죽 쏜 것이라네.”

설교하는 제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자신이 사용한 전도의 내용과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1. 사도 바울은 먼저 전도의 내용에 대해 말합니다.

(고전 2: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전 2: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작정했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 전도를 위해 그리스 수도였던 아덴(지금의 아테네)을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아덴은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었으며 그런 연유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많은 저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도 바울이 당대 지식인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한번 본 때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해박한 지식도 과시할 겸 멋지게 신학 논리를 펴 그들을 꼼짝 못하게 제압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 17:16)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행 17: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행 17:18)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행 17:19)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행 17:20)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행 17: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행 17:32)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행 17: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보시다시피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곳 아덴에서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참으로 뼈아픈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한 결과를 놓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이고 결국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인간의 말이나 지식으로는 전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는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사람의 영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의 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가 잘 안되어 있어서요?

아니요, 저는 평생 시험 준비, 설교 준비, ....준비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교인이 몇 명 안 모일까봐서요?

아니요, 저는 저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저의 죄로 인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결단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진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 진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삽시다.

2. 다음 사도 바울은 전도의 방식에 대해 말합니다.

(고전 2: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위나 학식 등으로 볼 때 어는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성격적으로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적극적으로 교회와 신도들을 잡아다 핍박한 점, 바나바와 마가 문제를 놓고 다툰 때의 단호함, 베드로와의 관계 등에서 사도 바울의 강한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1년 반 정도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물러 있으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왜, 무엇을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을 알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 눈치보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것은 비굴입니다.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높은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도 바울 같이 세상에서 아무 꿀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 꿇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붙여 주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내어 온갖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즈음 한국 교회는 열린 예배, 찬양 예배, 양 날개 성경 공부, 파노라마 성경 공부, 구역 모임, 셀 모임 등등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system 과 program 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돈을 쏟아 부어 전도 program 을 만들고 거금을 주고 연예인들을 불러 사람들을 모아다 놓는 집회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늘기는 커녕 정체하거나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기독교 국가인 양 떠들어 대지만 정작 대한민국 개신교인 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오천 만명 중 약 10%인 오백 만명 정도 뿐입니다(약 50%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약 20%가 개신교임).

그렇다고 그 오백만명이 모두 Born again Christian 입니까?

그 중 25%정도가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치면 약 125 만명만이 진실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쏟아부은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현대 교회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아덴에서와는 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걱정하고 그것만을 전했습니다.

전하되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덴에서와는 달리 일 년 육 개월의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 같이 일어납니다.

비단 바울만이 이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이들이 성령 받은 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한꺼번에 삼천명을 회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감동하게 된 것이지요.

(행 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 (행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 (행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 (행 2: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 (행 2: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 (행 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예수 십자가만을 알고,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신령한 은혜의 단비들이 내립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높이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며 삽시다.